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3호 HYUNBULNEWS.COM 2025년 8월 20일(음력 윤6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조계종은 8 · 15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4일 서울 봉은사에서 남북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남북, 무기 대신 대화로 신뢰 회복"

8월 14일, 봉은사서 광복 80주년 평화 기원 법회

남북평화 대화 재개 촉구문 발표
진우 스님 "민족 평화 화합 기원"
정부에 특사·회담·평화정책 촉구
대국민에 민간 교류 협력 당부
연꽃 한반도 만들기 퍼포먼스도

글=임은호 기자 · 사진=김내영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15 광복 80주년을 맞아 남북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우리 정부와 북측에 대화 재개 및 평화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14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8·15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민족 평화는 공동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회는 단순한 기도와 염원의 시간이 아닌 민족의 아픈 역사와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자는 소중한 다짐을 새기는 자리였다.

진우 스님은 먼저 대국민에게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종교계의 자비심과 화합의 실천이야말로 평화의 물꼬를 트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평화는 결코 누군가 대신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실천이 모여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대화를 거부하는 벽도 언젠가 허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에 엄중한 메시지를 남겼다. 진우 스님은 "민족의 평화를 외면한 채 대결과 고립의 길로만 나아간다면 그 끝은 모두에게 불행일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하며, 무기보다 대화를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화를 대화를 외면하지 말고 신뢰를 회복하는 여정에 다시 나서 달라"며 "민족 평화는 누구도 외면해서는 안될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과 불교계가 남북 화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민간교류의 창구가 되고, 앞으로도 자비와 지혜의 실천자로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확성기 중단과 같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에 불교계의 환영 뜻을 보낸 스님은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들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종단도 마땅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남북평화를 위한 대화재개 촉구문도 발표됐다. 법회에 동참한 참가자들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대독한 촉구문에서 남북 당국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재개 및 평화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남북관계 개선 계기를 만들기 위해 남북 간 특사 교환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 재개 △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정치, 군사 행위 중단 촉구 △민간 교류협력 적극 보장 등을 요청했다.

법회를 주관한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태효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해방과 도시에 분단을 맞아 80년이 된 지금까지도 분단을 해소하지 못한 채 갈등과 적대를 거듭하고 전쟁 위협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8·15 광복절에 맞춰 봉행됐던 동시법회가 2015년 이후 중단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평화의 목소리가 한반도에 울려 퍼지길 기원했다.

각계각층에서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법회에 대한 평화를 향한 행보에 기대감을 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한반도 평화는 정치적 목표가 아님을 확실히 하며 "후손들에게 분단으로 인한 적대와 전쟁의 공포가 아닌 평화와 번영을 물려주자"고 했고,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밝혀주는 연등을 높이 들어 한민족이라는 환한 미래를 향해 지극히 정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남중 차관의 대독에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화쟁과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남북 평화 공존을 향한 발걸음을 불교계가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다.

사부대중을 대표해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과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평화통일 발원문을 통해 "겨레가 합심해 통일을 향한 뜻을 모아 통일정토의 자양분을 삼고 분단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되는 대비원력을 실천하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남북 평화와 화합을 발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참석대중은 연꽃을 한반도 지도에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을 다해 심으며 '평화한반도 만들기'를 실천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차별 없는 존엄과 책임을"

조계종 사노위, 8월 12일 입장문
"죽음 대하는 사회 태도 변화를"

7월 7일 구미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23세 베트남 청년부터 8월 9~10일 전남 고흥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로 숨진 태국·베트남 노동자 2명, 곡성 농로에서 지게차에 깔려 숨진 이주노동자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어지는 이주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과를 촉구하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8월 1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한 사노위는 "정부는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를 가르지 않고 동일한 책임과 절차로 산재 사망에 대응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산업재해 없는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는 세상을 위해 불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노위는 8월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노동청 앞에서 '구미 폭염 베트남 노동자 49재 및 노동권 보장대회'를 열고 세상을 떠난 이주민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신문 인스타그램 개설

독자와의 소통 채널 다각화
AI로 캐릭터 '초심이' 개발
뉴스·콘텐츠로 불법 홍포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독자와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인스타그램(@with hyunbul)을 개설했다. 또 AI를 활용해 인스타그램 캐릭터 '초심이'〈사진〉를 개발해 MZ세대들에게 불교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안내한다.

현대불교신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는 불교 경전의 주요 경구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진·그림과 함께 소개하는 '한컷법문'을 만날 수 있다.

피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가 게시된다. 월요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본지에 연재하는 '위클리 선명상'을 AI를 활용해 음악으로 제작해 선보인다.

화요일에 게재되는 '초심로그'에서는 불교 관련 문화콘텐츠와 전시, 행사, 굿즈 등 '핫(Hot)'한 불교 소식을 전한다. 또 '절 초보'들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정보를 모은 '절 쓸신잡'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수요일에는 현밀 스님이 본지에 연재하고 있는 '뭉밀이 불스타툰', 목요일에는 불교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콘텐츠인 '불맛창작소'가 게시된다. '불맛창작소'에서는 '불맛나는 창작어 사전'과 '부캐법명 연구소' 같은 참신한 콘텐츠가 선보인다.

금요일에는 그 주의 불교계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클리핑이 제공된다. 〈관련 기사 5면〉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인스타그램 (@with hyunbul) 바로가기
WITH_HYUNBUL

